

“핵심시장 한국 맡게 되어 영광, 한국인관광객 회복 최우선 목표로 뛰겠다”



한국 내 일본관광을 총괄하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분주해졌다. 위드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일본 입국규제가 완화되며 다시금 일본여행 재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봉이 있는 이가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이었던 지난 7월에 부임한 기타자와 나오카 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시장 회복을 위해 각오를 다진 기타자와 나오카 소장을 일본관광신문이 만나보았다.

글/이상직 기자

JN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北澤 直樹 所長

기타자와 나오카 소장

한국 내 4단계 거리두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7월,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신임소장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기타자와 나오카 소장. 이번이 한국과 첫 인연이다.

“부임은 7월에 하였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여행업계 관계자분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부임 이전까지 베이징, 뉴욕에서 근무했고, 본부 근무 당시에도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모션을 담당해 한국 시장과 이번이 첫 인연이면서 한국 시장을 총괄하는 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일본과 가장 이웃한 나라인 한국시장을 책임지는 서울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소감이 궁금했다.

기타자와 소장은 “한국은 방일객수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시장이지만, JNTO의 해외 거점 당 방일객수로 살펴보면 한국은 가장 많은 관광객수를 기록하는 중요시장이며, 이런 한국을 담당하게 됨에 큰 책임감과 더불어 기대감도 크다”며 웃어 보였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일본여행 보이콧 사태로 한국인관광객 감소에 뛰어 어 2020년 연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방일객이 급감해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시장 회복과 함께 관광객수 증가만이 남았다는 뜻.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상황인 만큼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보다는 회복

하는 시장에 힘을 보태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기타자와 소장의 말이다.

인터뷰 당일 일본정부가 입국제한의 규정 완화를 발표하며 일본으로의 문이 열리는 반기운 뉴스가 날아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른바 ‘미즈기 와(水際·공항이나 항만에서 캐리어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 대책’으로, 이 대책은 11월 8일 자를 기해 완화한 것.

이로써 그동안 일본 입국을 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客 및 유학생 등이 일본에 입국 할 수 있게 되며, 인적교류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궁금한 한국인관광객의 일본 여행 재개 시점을 물었다.

기타자와 소장은 “한국 내 여행업계 등을 통해 일반 관광객의 일본 입국 재개 요청에 대한 고견을 듣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외국인관광객 확대를 논하기에는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마찬가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한국의 정서도 같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적어도 500만 명 선까지의 회복을 임기 동안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여행업계와 더욱 소통하고, 업계와 함께하는 프로모션 등을 통해 일본여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신뢰회복을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 지방도시로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율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국시장의 경우 일본과 이웃하여 자리한 만큼 일본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과 높고 이것이 관광수요로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로 운휴증인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내 지방도시로의 취항 재개 및 확대가 한국 내 일본여행 회복의 중요한 일쇠가 될 것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업계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상 입국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오는 봄 이후는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소장으로서 목표는 “하루 빨리 방일 한국인관광객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외국인여행자수 6천만 명 및 방일외국인여행소비액 15조엔(한화 약 154조)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의 역할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2018년 당시 역대 최대인 750만 명의 기록을 상회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조기에 이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500만 명 선까지의 회복을 임기 동안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여행업계와 더욱 소통하고, 업계와 함께하는 프로모션 등을 통해 일본여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신뢰회복을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 지방도시로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율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국시장의 경우 일본과 이웃하여 자리한 만큼 일본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과 높고 이것이 관광수요로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로 운휴증인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내 지방도시로의 취항 재개 및 확대가 한국 내 일본여행 회복의 중요한 일쇠가 될 것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업계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쿄스카이트리타운 매지컬 크리스마스 2021 개최

40만구 일루미네이션 장식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

도쿄스카이트리가 자리한 복합상업시설 ‘도쿄스카이트리타운’이 겨울맞이 캠페인인 ‘도쿄스카이트리타운 매지컬 크리스마스 2021’을 개최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25일까지.

특히, 도쿄스카이트리타운 전체에 약 40만구의 일루미네이션이 장식되고, 4층의 스카이아리나에는 높이 8m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 장식조명 점등(16시~24시)이 더해져 크리스마스다운 불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2년 만에 스케이트링크도 오픈한다. 실제 얼음을 사용한 아이스링크로, 스케이트를 즐기며 한 밤의 일루미네이션과 도쿄스카이트리의 야간 라이팅을 조망할 수 있어 로맨틱한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스케이트링크 운영기간은 12월 상순부터 내년 2월 하순까지.

도쿄의 아름답고 화려한 밤을 연출하는

도쿄스카이트리 라이팅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하여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케하는 ‘삼폐언트리’와 따뜻한 불불을 형상화한 ‘캔들트리’의 2종의 크리스마스 한정 라이팅 데마가 적용되어 점등되어 특별한 불거리들 선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크리스마스 한정 코스튬은 입은 공식 캐릭터인 소리카라정의 환영 피포먼스와 산타 복장의 크리닝 스파이 도쿄스카이트리의 창문을 뛰는 특별 피포먼스 등도 펼쳐져 위드 코로나를 통해 2년 만에 찾아온 도쿄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도쿄스카이트리은 도쿄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도쿄스카이트리’와 상업시설인 ‘도쿄스카이트리’와 도내 유수의 실내 수족관인 ‘스미다 아쿠아리움’, 그리고 실내 천문관인 ‘코니카미놀타 플라네타리움’ 등이 자리한 복합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도쿄 관광의 최신 트렌드를 발신하는 명소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명소다.



| 오니리 나오코 기자

에어부산, 11월 일본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

에어부산이 11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모두 5차례 운항한다. 11월 한 달 동안 김해국제공항에서

3회, 김포국제공항에서 2회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포공항에서는

11월 20일 2편, 27

일 1편 운항하며, 김포

공항에서는 11월 20일과

27일 각각 1편씩 운항한다.

김해공항 출발편은 쓰시

마 상공을 거쳐 사가·구마모토 등 일본 규슈 지역을 선회한 후 다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는 1시간

30분 여정이다. 김포공항 출발편은 대구와 부산을 거쳐 쓰시마(나가사키현) 상공까지 간 뒤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11월 20일, 27일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은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판매한다. 편도 총액 기준 11만 8700원

부터 판매하며, 기내 럭카드로 우행은 추첨)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 왕복 무료항공권과 에어부산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에어부

산 기내 면세사이트를 통해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품도 사전 구매할 수 있다.

나머지 3편(김포공항 1편, 김포공항 2편)은 롯데면세점과 협업해 전세편으로 운항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누적 탑승률이 80%를 넘길 만큼 여전히 인기가 좋은 만큼 저렴하게 연말 선물은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 이상직 기자

돗토리현 사케 양조장 랜선투어 실시

산인지역의 관광도시인 돗토리현이 지난 10월 29일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돗토리현 사케 양조장 랜선투어’를 실시했다.

금번 랜선투어는 코로나 사태 속 직접 돗토리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돗토리현의 매력적인 사케와 돗토리현의 최신 관광 정보를 국내 여행업계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요무스비 주조(사카이미나토시 소재)와의 공동 기획으로 실시되었다.

랜선투어에서는 치요무스비 주조 양조장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직접 양조장을 돌아보는 랜선시찰에 더해, 랜선투어 참석자들에게는 사전에 치요무스비 주조의 3종의 사케를 배송, 일본 현지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시음을 즐기는 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돗토리현 관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돗토리현으로의 상품 구성을 위한 최신 정보도 함께 발신했다.

랜선투어를 기획한 돗토리현 국제관광유객과 세라 토모노리 과장 보좌는 “온라인 랜선투어를 통해 한국 여행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변화없는 돗토리현의 매력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히고, “현재 인천~요나고공항 간 정기편은 코로나 사태로 휴항중이지만 에어서울과 함께 돛토리현 무착륙여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국인관광객



객과 소통하는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10월 18일부터 21일 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트래블쇼 2021에도 출전해 돛토리현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상직 기자

TOKYO's SKY&WATER

TOKYO SKYTREE®

TOKYO mizumachi

Sumida River Walk

